

## 2장 희랍의 신들 (1) - 제우스의 형제와 연인들

올림포스의 열두 신 중 절반은 부모 세대에 속하고, 절반은 제우스의 자식들로서 그 다음 세대에 속한다.

### 1. 제우스

올림포스 신들 가운데 최고 권력자이다. 원래 하늘 신이고, 가부장권을 대표하는 신이었으나, 후에 날씨의 신 기능까지 갖게 되었다. 그림에서 보면 제우스는 대개 벼락을 손에 쥐고 있거나, 그것을 던지는 모습이다.

제우스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손님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아내를 납치한 파리스를 벌하고 그의 고향 트로이아를 멸망시킨다.

#### 1) 아테네의 탄생

제우스의 아내 메티스(지혜)가 아기를 가졌을 때, 제우스는 그 여신이 낳는 두 번째 아이가 아버지를 능가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메티스를 그대로 삼켜버렸고, 이후로 지혜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제우스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고, 프로메테우스, 또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머리를 도끼로 쪼개게 했다. 거기서 완전 무장을 한 채 고통을 지르며 튀어나온 것이 아테네 여신이다.

#### 2) 제우스의 부인들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여신들은 대개 제우스의 통치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추상개념들이라 신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

제우스는 백조로 변하여 레다와 결합했고, 그녀는 제우스의 젊은이들(디오스쿠로이)라고 불리는 카스토르와 폴뤼데우케스를 낳는다. 이들은 뱃사람을 보호하는 신이 되었다.

#### 3) 에우로페

에우로페는 페니키아의 왕녀였는데, 제우스가 소로 변하여 접근해서는 등에 업고 달아났다. 그리고 그녀를 크레테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 중에 가장 유명한 이가 미노스이다.

#### 4) 이오

이오는 아르고스 땅의 헤라 여사제였는데, 제우스는 그녀를 구름으로 감싸고서 차지하였다. 헤라가 급습하자 제우스는 얼른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다. 헤라는 그것을 선물로 요구해서는, 눈이 100개 달린 존재인 아르고스에게 지키게 한다. 결국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서 아르고스를 죽이게 된다. 하지만 이오는 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고, 헤라가 등을 보내서 괴롭히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서 온 땅을 헤멘다. 결국 이집트에 이르러서야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거기서 아들을 낳고 신으로 섬겨진다.

### 5) 칼리스토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처녀였다. 제우스가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접근하여 그녀를 차지한다. 그녀는 목욕 중에 임신이 탄로나 무리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녀는 아이를 하나 낳고는 곰으로 변했는데, 나중에 사냥꾼으로 자란 아이가 자기 어미를 만나 창으로 찌르려는 순간, 제우스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큰곰자리, 작은곰자리로 만들었다 한다.

### 6) 가뉘메데스

가뉘메데스는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서 제우스가 납치해다가 자신의 술 따르는 시동(侍童)으로 삼았다는 소년이다. 그는 트로이아의 왕자로서, 흔히 제우스가 독수리를 보내서, 또는 스스로 독수리로 변해서 채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동성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본들도 전해진다.

## 2. 헤라

헤라의 주된 역할은 결혼을 보호하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것이었다.

익시온은 신들과 가까워서 자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헤라를 보고는 욕정을 품었다. 제우스가 이것을 눈치 채고 구름으로 헤라 모습을 만들어서 익시온에게 접근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익시온은 그 구름과 동침하였고, 거기서 탄생한 것이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족속이다. 이 익시온은 나중에 붙잡혀서 영원히 불타는 수레바퀴(태양)에 묶였다.

## 3. 데메테르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는 제우스와의 사이에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그 딸이 하데스에게 납치되었을 때 올림포스를 떠나 방랑하였고, 딸이 저승에서 지내는 동안은 곡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유명하다.

데메테르의 이름 뜻은 ‘땅어머니’이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는 온 세상에 농사법을 퍼트리고자 날개 달린 수레에 트립톨레모스를 태워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문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문화 영웅’이라고 한다.

## 4.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보통 바다, 지진, 말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보통 제비뽑기로 바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하는데, 지진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땅의 신인듯 하다. (포세이돈이란 이름은 ‘땅의 남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포세이돈은 아테나이를 차지하려고 아테네 여신과 서로 다투었다. 둘은 각각 선물을 주었는데, 포세이돈은 짠 물이 솟는 샘을, 아테네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주어서 결국 아테네가 그 도시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포세이돈이 트로이아를 위해 성을 쌓아주고는 그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이

야기도 있다.

포세이돈은 말의 모습으로 변하여 여러 존재와 결합했고 많은 명마들을 낳았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고르곤 메두사가 목이 베일 때 태어난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이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포세이돈은 보통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말을 타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 5. 하데스

저승의 신 하데스는 꽃 따러 나온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여 저승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녀에게 석류를 먹도록 해서 그녀가 완전히 이승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만 유명하다.

사람들은 하데스라는 무서운 이름 대신 그를 플루톤(‘부유한 자’)이라고 불렀다. 그는 보통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에게는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는 일단 저승에 들어선 사람을 다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6. 페르세포네

저승의 여주인인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젊은 특성을 보여주는 여신으로, 그냥 ‘코레’(처녀)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녀는 성격이 온화하여 여러 사람을 이승으로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를 꼽을 수 있다.